

김별아의 문학과 삶



마음이 마음에

이렇게 명치가 불뚝을 삼킨 듯 핫한 것을 보면 아마도 마음은 가슴에 있는 게다. 이토록 머리가 무거운 것을 보면 어쩌면 마음은 머리에 있는지도 모른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육신거리고 미열로 들끓는 것을 보면 마음은 손끝 발끝까지 속속들이 스며있나 보다.

좀처럼 마음을 가누기 어려운 나날들이다. 잔인한 4월이 지나고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왔건만, 이 눈부신 신통막저 아프다.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을 더욱 해쳤다. 마음대로 웃을 수가 없다. 마음껏 숨쉬기조차 죄스럽다. 세월호 사건 이후 온 나라 사람들이 '집단 우울증'에 빠진 듯하다는 진단은 이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국가냐?”
“어떻게 나라가 이 지경이냐?”
질문은 이미 오래된 것이다. 광주에서 민간인들이 총칼에 학살당할 때에도, 대구에서 지하철에 갇힌 사람들이 불타 죽을 때에도, 밀양에서 평생 땅만 파던 농부 성이가 자기 목에 불을 붙일 때에도, 사람들은 몰았다. 신음하며 절규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던 질문은, 결국 2014년에 이르러 통곡으로 터졌다.

심리학에서는 외부에서 갑작스런 자극이 가해졌을 때, 맞서 싸울 것인지 뒤돌아 도망칠 것인지를 선택하는 본능을 ‘투쟁·도주 반응(Fight or flight)’이라 명명한다. 그런데 이 갑갑한 굴길에서는 도망치려 해도 도망칠 길이 없다. 막다른 절벽이다. 그렇다면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무엇과, 어떻게?! 또 다시 본능에게 물어 답을 구해야 한다. 무엇도, 어떤 정책과 보상도 2014년 4월 16일 이전의 삶으로 돌리지는 못하리라.

그럼에도 아주 조금, 그나마 나아진 방향으로 달린 게 있다면 이처럼 치명상을 입은 마음을 돌보아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것이다. 희생자만이 아니라 생존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보듬기 위해 정신과 의사가 현장에서 달려가고, 이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관리할 심리 센터를 운영하는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과 언젠고 회상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 떠난 이들을 위해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은 죽음을 넘어 삶을 잠식한다. 살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마음, 무너져 버린 마음의 손을 잡아주어야 한다.

근간에 ‘힐링’이라는 말이 못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렸다. 하지만 유행어처럼 너나 할 것 없이 떠들어대는 ‘힐링’은 왠지 절박하기보다 나른하게 들렸다. 치유가 필요하다면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할 텐데, 그 상처가 과연 어떤 것이며, 그것을 입힌 가해자의 정체가 사투 모호했기 때문이다.

세계 1위의 자살률과 바다를 치는 행복지수가 분명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였음에도, 사람들은 그저 자기 상처만을 끌어안은 채 공공 앞이나 당의정 같은 ‘힐링 마케팅’에 값싼 위로를 구했다. 그렇게 고립되고 조각난 마음의 퍼즐을 맞춰가며, 어떻게든 우울과 절망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것이다.

하지만 마음은 혼자만의 힘으로 치유할 수 없다. 속세를 떠난 도인이 아니고서야 침몰하는 세상에서 내 마음만 달랠 수 없을 수 없는 것이다. 나만 평화롭고 나만 행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럴 수도 없는 것이었다.

합동분향소에, 거리의 노란 리본에, 인터넷 게시판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미안하다’는 말은 지금껏 해 왔던 허망한 발버둥질에 대한 뼈아픈 반성이다. 다시금 마음이 마음을 겨안아야 하고, 마음이 마음에 의지해야 할 까닭이 명백하다.

한편 예전과 다르게 마음을 돌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예전에 돌보지 못한 마음들을 돌이켜 보면 아프다. 인터넷으로 현상이 생중계되는 상황에서도 현실은 왜곡되고 조작되니까지 한다.

그러나 모든 연로가 막히고 통제당했던 시절, 비열한 공작으로 ‘선동’에 의해 ‘난동’을 일으키는 ‘폭도’라 매도당하며 거들거들 찢겨나갔을 마음들은 어땠을 것인가? 그때 방지되었던 마음들이 다시금 무거운 속제를 더한다. 정신과 의사들의 견해에 의하면, 아직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의 단계까지 가지도 못했다고 한다. 다만 지금도 끊임 없이 마음에 상처를 받는 중이라고.

진정한 마음의 치유는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해지고, 책임자의 처벌과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시작될 수 있다. 거리에는 거리의 마음이 있다.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며 진실을 요구하는 것이 그 마음과 함께하는 방법이다. 그 후로도 슬퍼해야 할 날들은 길게 남아 있다.

아무리 헤아리려도 헤아릴 수 없는 마음, 깊은 슬픔 속에 그 마음들이 빠져리개 의로울 때, 그들을 잊지 않고 끝끝내 기억하는 것만이 마음에 대한 예의이라.

<소설가>

종교칼럼



김관수 천주교 광주대교구 청소년사목국장

‘복음의 기쁨’ 53항: 버려진 사람들

게 속고하시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강력히 비판하고 계십니다. 특히 ‘복음의 기쁨’ 53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배척과 불평등’의 경계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한 경계는 사람을 죽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배척이고 무엇이 불평등한 것입니까? 나아가 든 노숙자가 길에서 얼어 죽은 것은 기사화되지 않으면서, 추가 지수가 조금만 내려가도 기사화되는 것이 바로 배척이고, 한쪽에서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음식이 버려지고 있는 현실이 바로 사회적 불평등입니다. 오늘날 모든 것은 경쟁의 논리와 약속강식의 법칙 아래 놓이게 되면서,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배척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인간을 사용하다가 그냥 버리는 소모품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배척된 이들은 더 이상 사회의 최하층이나 주변인이나 힘 없는 이들이 아니라, 사회 밖으로 쫓겨난 이들, 즉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버려진 사람들! 문득 세월호에 버려진 250명의 어린 학생을 포함한 302명의 희생자들이 생각납니다. 특히 기관실 선원

들이 그 통로 앞으로 지나면서도 차갑게 외면해 버린 2명의 부상당한 조리원들! 마치 동물의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철저히 적용되는 듯합니다. 또한 자신들은 신분을 감추기 위해 승무원실로 다시 돌아가 제복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여우까지 부리면서 선내 방송에는 계속 “그 자리에 대기하라”는 말만 반복시켜 급격히 침몰하는 배에서조차도 구조만을 기다렸던 순진한 학생들과 승객들! 그리고 KBS 사테에서 드러나듯이 정부의 방송 장악 기도와 언론 통제로 말미암아 정부와 언론으로부터 버림받은 실종자 가족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는 민주주의 사회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분들만 버림받은 것일까요? 세월호는 침몰 당시 승용차 124대, 화물차 56대 등 차량 180대를 실었던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에 차량 180대를 적재했다는 말은 곧, 운전자가 그만된 수많은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사고 당시 세월호에 승선했다

고 발표된 승객수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총 승객수 476명 중 안전 단원과 학생이 325명. 인솔교사가 14명, 승무원이 33명 그리고 일반 승객이 104명입니다. 여기서 학생들은 운전할 수 없고, 인솔교사들도 학생들과 함께 승선하였으니 세월호에 적재된 차량 운전자와 무관할 것입니다. 또한 승무원들도 개인 승용차를 여객선에 싣고 다니지는 않았을 것이고, 일반 승객 중에는 환갑을 맞은 동창모임 등 단체여행객들도 있었으니 이들도 버스나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함께 이동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현재 알고 있는 실종자는 16명이 전부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더 철저히 저 바다 깊은 어둠과 가까운 곳에 버려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이 땅에서 그러나 생명이 이렇게 쉽게 버려질 수 있다는 것에 생각하면서 ‘배척의 경계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경고를 우리는 필히 귀담아 들어야 하겠습니까.

기고



정명호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광주에 대형 학술대회 꾸준히 유치해야

회도 전남대병원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연결해 생중계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이런 행사들은 학회 성격을 떠나 행사가 열리는 2~3일 동안 광주를 국내외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단기간 상당한 경제유발 효과를 내 광주 경제발전에도 기여한다.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아직도 광주를 낙후된 도시, 시골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큰 행사를 통해 광주를 찾는 사람들은 광주의 또 다른 모습과 발전된 모습을 보게 되고, 다시 또 광주를 찾게 된다.

15년 만에 광주에서 개최된 대한심장학회는 타 지역 인사들에게 광주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예전에 다른 지역 사람들은 ‘광주는 시설과 교통이 좋지 않아 큰 학회를 치를 능력이 없는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한심장학회는 광주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데 깊은 인상을 받아 앞으로 3년에 한번은 광주에서 행사를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다수 학회들이 다양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지역 이미지와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다. 하지만 의료 분야의 학회가 미치는 영향은 타 학회와 비교가 안 될 정도다.

앞으로 산업기반이 약한 광주는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 분야 등 다양한 대형 학회를 많이 유치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광주가 더 변해야 한다. 필자가 외국의 크고 작은 학회를 많이 가보고 느낀 것은 성공적인 학회 유치와 개최를 위해서는 일단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고 편리한 이동성, 서비스 정신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다. 이번 대한심장학회 유치만 보더라도 일본과 미국 등 외국 의 심장 전문가들도 대거 광주를 찾았다.

속소는 대우문 김대중컨벤션센터 바로 맞은편의 호텔이었다. 학회날 아침에 비가 오는데 우산을 쓰고 큰 도로를 건너야 했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큰 행사장과 호텔은 구름다리나 지하도로 연결 되어 있다. 학회장을 찾는 이들의 편의를 위해서다. 우리도 김대중컨벤션센터와 호텔 사이에 구름다리가 연결되었다면 행사 유치를 위해 준비된 광주라는 느낌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호텔과 김대중컨벤션센터 간에는 구름다리 연결을 위해 오래 전부터 시에 요청을 했으나 시민단체의 반발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들었다. 일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해당 ‘호텔만을 위한 특혜가 아닌가’, ‘다른 호텔의 형편에서 어긋난다’ 등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구름다리 하나지만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곳은 날씨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신호등을 건너지 않고 구름다리를 통해 바로 연결된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찾음으로써 “광주는 행사를 위해 이런 배려까지 했구나, 광주에서 학회를 하니 정말 편리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심장학회를 예로 들면 미국의 경우 심장학회 유치를 위해 주 전체가 나서고 주지사가 나서서 축하를 한다. 이런 점만 보아도 광회 유치가 얼마나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주는 지 알 수 있다.

이번 심장학회도 광주시의 적극적인 도움과 광주의 큰 행사유치를 담당하는 김대중컨벤션부문의 임직원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기에 유지할 수 있었고, 추가로 광주 유치를 약속받았다.

세계인이 참여하는 U대회 유치도 물론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대회 유치는 속속 건립 등 막대한 투자가 동반되어야 된다.

학회 유치는 기존 시설에 조금 더 투자를 한다면 앞으로 광주와 전남의 지역 경제 발전, 광주시 위상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적은 투자로 큰 수익을 얻기 위해 광주시 전체가 대형 학술대회 유치가 나서야 될 것이다.

社說

박근혜 정부 성패 혁신적인 인사에 달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안대희 전 대법관을 새 총리로 내정하고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정수 국가안보실장을 전격 결집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각 수준

의 대폭적인 개각이 예상된다. 앞으로 있게 될 개각은 ‘세월호 사고’로 유발된 것이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일찌감치 물결이 필요성이 제기돼 온 것도 사실이다. 이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유능한 장관들을 발탁해야 중반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

우선 새 장관들은 능력 있는 일꾼이어야 한다. ‘민생’을 풀 수 있는 해법을 가진 인재를 뽑아야 하는 것이다. 민생의 고충을 알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를 중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탁상공론·전시행경이 아니라 국정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가진 인사가 부처의 장을 맡아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 국민의 마음을 다독일 줄 아는 내각이 돼야 한다. 세월호 사고 초기

에 피해 인원조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망신을 당한 안전행정부 장관, 라면 먹다가 손가락질 받은 교육부 장관, 그런 인사들이 또다시 정부에 들어온다면 실망만 안겨줄 뿐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국민이 어리석은 탓이라는 인식을 가진 그런 각료(경제부총리가 다시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개각에서 중점을 뒤야 할 원칙은 화합이다. 이 정부 초기부터 법조계와 군 출신 등 특정 분야에만 치중된 인선은 국정이 편향될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다양해진 사회구조와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원만한 이행을 이끌어내려면 균형잡힌 개각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호남 인사 소외도 이번에는 해소됐으면 한다. 광주·전남·북 출신 가운데 사람이 없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 이번 개각은 호남 출신을 중용함으로써 박 대통령이 줄곧 강조했던 ‘대통령’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해남 어민들 눈물겨운 소송, 두고만 볼 건가

어민들이 대교 건설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 1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정부가 다시 항소함에 따라 피해 가중과 함께 장기기간의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생계를 뒤로한 채 또다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함겨운 소송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해남군 북평면 일대 어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착공된 안도대교 건설 과정에서 양식장과 갯벌에 흙탕물이 유입돼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하지만, 시행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당시 여수대 수산과학연구소의 어업피해 영향조사를 토대로 보상 대상지역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어민 72명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2010년 9월 1일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어민들은 지난해 12월 5일 3년3개월 만의 법정 공방 끝에 1심에서 승소, 29억 원 상당의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정부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깊은 시름에 잠기게 됐다. 최근 몇 년 새 양식장과

갯벌에서 수확하는 어획량이 예년보다 40%가량 감소해 인건비조차 건지기 어려운데다 2심이 진행될 경우 소송 준비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도 1심이 소송 내내 생계를 걱정해야 했던 어민들로서는 항소심에서 승소를 해도 정부가 대법원까지 상고한다면 적어도 5~6년 이상 소송에 시달려야 하는 형편이다. 사실상 ‘어민 죽이기’나 다를 바 없다.

정부 입장에서선 소송 절차상 항소나 상고가 불가피하겠지만 피해 여부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지 법적 절차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1심 배상 판결이 실효력이 있고, 입증에 큰 문제가 없다면 정부는 항소를 철회하는 게 옳다.

해남군과 전남도 역시 어민들의 생계와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 피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것도 필요하다. 어민들의 눈물겨운 싸움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것이다.

無 等 鼓

얼마 전 열린 ‘아트토이’전에 갔다 양재영 작가의 작품을 보고 한참 동안 웃었다. 어릴 적 좋아했던 만화 속 캐릭터가 딱하니 자리잡고 있어서다. ‘소년중앙’에 연재됐던 길창덕의 ‘로봇찌빠’를 등장시켜다 머리에 작은 프로펠러를 단 찹빠를 보니 사랑했던 만화 속 주인공들이 좌르르 떠올랐다.

반쯤 감은 눈에, 머리에 땀통 자국이 있던 ‘꺼봉이’, 꺼봉이의 전직이었던 동생 ‘까살이’, 이상무 작가의 작품이 먼 쪽 등장하는 ‘독양’까지.

윤승운과 박재동

장 작가에게서 언어와 후배가 완성한 페이퍼 토이(종이를 오리고, 접어서 만드는 것) ‘로봇찌빠’는 지금 내 책상 위에 놓여 있다. 한면씩 쳐다볼 때마다 절로 웃음이 난다.

놀거리가 별로 없는 시절, 만화책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1969년부터 발간된 ‘소년중앙’과 ‘어깨동무’, ‘새소년’ 등 만화잡지를 둘러보는 건 월례행사였다. 만화 속 주인공과 울고 웃었고, 그들에 대한 애정은 넘쳐났다.

아이들은 만화와 함께 커나갔다. 역

사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던 중학교 시절 프랑스 혁명을 인지시킨 건 오스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베르사이유의 장미’였다. 고독으로 푹푹 풍긴 이현세의 ‘공포의 외인구단’ 주인공 까치는 여학생들의 마음을 아리게 했다. 가상 국가의 시민혁명을 소재로 한 김해린의 ‘북해의 별’과 허영만의 ‘오! 한강’은 정춘의 필독서였다.

국내 대표 만화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다. ‘땡땡이 먼 쪽 등장하는 ‘독

서당’으로 유명한 명랑만화의 대가 윤승운 선생의 ‘애니메이션 초대전’은 6

월20일까지 나주 동신대 박물관에서 열린다.

시사만화가 박재동의 작품은 문화공간 ‘메이홀’(29일까지)에서 만날 수 있다. 박 화백이 생활에서 길어올린 손바닥 그림, 여행 중에 그린 스케치화, 만평까지 20여 점의 전시된다.

국내 시사 만평의 새 장을 열었던 ‘한겨레 그림판’(1988~1996) 연재 시사만화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슬프게도, 2014년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 F A X 227-9500 >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사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